

[2020 수시] 동국대, 검정고시·국외고 출신에도 학종 문 열어... 논술 수능 부담

동국대는 전년도 입학전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시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, 논술 전형 등에 소폭 변화를 주었다. 이 중 수험생이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지원 자격 변경이다.

동국대는 2020학년도부터 모든 수시 전형의 **고교졸업연도 제한을 폐지**한다. 이에 따라 졸업생은 졸업연도에 관계없이 △Do Dream 전형 △학교장추천인재 전형 △불교추천인재 전형 등 모집인원 규모가 큰 학생부종합전형에 모두 지원 가능하다.

또한 동국대는 학교장추천인재 전형을 제외한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의 국내 고교 출신자 제한도 폐지했다. 따라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이 불가능했던 검정고시 출신자, 국외고 출신자 등 동등 이상 학력을 지닌 지원자 역시 올해부터 지원 가능하다.

이러한 변화 속에 동국대의 2020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주목해야 할 전형은 **학교장추천인재 전형**이다. 서류종합평가 100%로 학생을 선발하는 이 전형은 2020학년도부터 **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한다.** - 교과 성적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

해당 전형에 대한 동국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(배점)도 전년도와 비교해 조금 달라졌다. 전년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△지원동기 및 진로계획(15점) △자기주도적 학습능력(40점) △전공적합성(25점) △인성 및 사회성(20)을 평가했다면, 2020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△지원동기(10점) △자기주도적 학습능력(40점) △전공적합성(30점) △인성 및 사회성(20점)을 평가한다.

진로계획을 더 이상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**전공적합성**에 대한 배점을 높인 셈이다. 따라서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**학교생활기록부**만으로 자신의 학업 역량 및 전공 수학 역량, 전공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.

학생부종합전형이 이처럼 지원 자격이나 제출서류 등에서만 변화가 있을 뿐 전형방법 자체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편이라면, 논술우수자 전형은 여러모로 주목해야 할 점들이 많다. 먼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다. 동국대는 2020학년도부터 논술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.

이에 올해부터 인문계열은 국/수/영/탐(1)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(한국사 4등급 이내), 자연계열은 국/수(가)/영/과(1)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(수(가) 또는 과탐 1개 이상 포함, 한국사 4등급 이내), 경찰행정학부는 국/수/영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(한국사 4등급 이내)를 충족하면 된다.

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동국대의 바뀐 논술고사 출제방식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전년도까지 자연계열 논술에서 수학 문제 2개, 과학 문제 1개를 출제했던 동국대는 올해부터 과

학문제를 폐지하여 과학논술에 대한 자연계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수리 논술 문제 증대를 예고했다. 이에 올해부터 동국대 자연계열 논술은 **수리논술만으로 3개 문제가 출제** 된다.